

# 매하구, 다양한 조치로 대졸생 취업창업 촉진



매하구는 대학졸업생들에게 더욱 많은 취업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하고 진력을 다해 취업을 안정시켜 대학졸업생 인재들을 매하구에 정착하고 매하구에 뿌리내리고 매하구를 건설하도록 끌어들이고 있다.

“저는 졸업후 고향에서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취업봉사일군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취직자들의 전공 특장과 구직 의향에 따라 많은 일자리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현재 광명가두 전도사회구역의 일군으로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산서사범대학을 졸업한 정호영은 기뻐하며 말했다.

매하구에는 정호영처럼 취업 봉사를 통해 취직한 대학졸업생들이 많다.

이런 구직이야기의 배후에서는 매

하구시 취업 봉사의 온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더 많은 대학졸업생을 길림성에 남겨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하는 것은 길림 전면 진흥이 실현되는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관건기를 단단히 틀어쥐고 조기계획, 조기배치, 조기행동을 견지하여 취업 경로를 한층 더 넓혀야 한다. 미취업 대학졸업생 지원 행동을 적극 전개하고 주동적으로 ‘보모식’ 집중 지원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매하구에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하구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장위 국장이 말했다.

디지털화 플랫폼이 다리를 놓아 집중봉사가 끊이지 않는다. 매하구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미취업 구직

등기 애플릿에 의탁하여 길림성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미취업 대학졸업생 실명 등기 시스템, ‘96885’ 길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대학졸업생들을 추출하여 대학졸업생 인재정보 뱅크를 구축하고 1대1 ‘전문인력 봉사, 지속 추적’ 모식에 따라 전화 답방, 워킹 교류 등 경로로 미취업 대학졸업생들과 연계하여 대학졸업생에게 취업 일터를 정확하게 추천하는 ‘온난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빅데이터 대조를 통해 ‘인재가 일자리를 찾기’에서 ‘일자리가 인재 찾기’의 전환을 실현했다.

밀집 초빙으로 일터를 보내주고 취업 구조에 경로가 생겼다. 매하구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위 국장은 “대학졸업생들의 취업 경로를 넓히고 일터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하여 각종 기업, 특히 ‘4+3’ 주도산업과의 연계

상황을 다그쳤다. 온라인에서는 매하구발표, 매하구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워킹 공식계정 등 플랫폼을 매개로 기업 일터 고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구직자들에게 취업 참고를 제공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길림사환제약유한회사, 매하구천보병원 등 5개 광질기업을 조직하여 길림농업대학, 감미직업기술학원 등 6개 대학교에 가서 ‘길림’ 인재 집결, ‘매하구에 남기’ 교정특별초빙회, ‘2024 대중도시 연합초빙’ 대학졸업생 계열 전문초빙활동에 참가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미 6차례의 초빙활동을 전개하고 ‘인사국장 생방송 일터 안내’ 생방송을 2차례 조직했는데 182개 기업에서 867개의 일터를 제공, 415명이 초보적으로 취업 의향을 달성했다.

매하구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또 미취업 대학졸업생들에게 직업계획, 직업체험, 구직교류 등 목적성 직업지도도를 제공하고 견학좌담교류, 직무수행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직장 적응력을 강화시켰다. 플랫폼을 견제, 디지털 경제 종사 기회를 발굴하고 교육의료, 농업기술, 신에너지 화학공업 등 인재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증설하며 고용단위들을 동원하여 졸업생에게 적합한 관리, 기술 일터를 증설하고 사회조직에서 더 많은 취업 견습생과 견습일터를 개척하며 미취업 대학졸업생중 취업애로자들에게 결연지원을 전개하고 일터정보를 우선 추천하며 취업견습과 직업감상에 참가하도록 우선 조직함으로써 자신의 노력을 통해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매하구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취업 촉진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매하구에 와서 취업, 창업하는 대학졸업생들에게 끊임없이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과 서비스의 병행으로 그들의 행복감, 귀속감, 획득감을 제고하며 더 큰 강도와 더 빠른 속도로 취업을 촉진하여 대학졸업생들의 조기 취업, 좋은 취업을 추진하게 된다.

/ 유경봉기자 / 사진 왕요희

## 5G 모바일전화 사용자 8억 5,100만명



공정정보화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우리나라 5G 모바일전화 사용자수는 8억 5,100만명에 달해 4G 사용자수보다 9,000여만명 많다.

네트워크 기초가 날로 보완되었다. 2월말까지 우리나라 5G 기지국수는 350만 9,000개에 달해 모바일기지국 총수의 30% 가까이 차지했다. 공정정보화부는 ‘신호업그레이드’ 행동, 5G 응용 ‘뭉달기’ 행동을 연달아 출시하여 5G 보급과 응용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켰다.

5G 기술이 빠르게 진화되었다. 일전 중국이동은 5G-A 상용 배치를 가동, 100개 상용 도시 명단을 공포했으며 년내에 300개 이상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5G-A는 5G에 비해 속도가 더욱 빠르고 련결이 더욱 크며 지연이 더욱 낮은 등 특점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이동은 60가지 5G-A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운영업체 가운데서 1위이다. 5G 응용이 다그쳐 확장되었다. 2월말까지 우리나라 모바일 인터넷 루트 트래픽은 487억 6,000만 GB에 도달하여 동기 대비 16.6% 성장했는데 그중 5G 사용자 접속 트래픽은 동기 대비 59.8% 증가하여 53.3%를 차지함으로써 총 트래픽 증속이 동기보다 4.6% 포인트 향상되도록 견인했다. 전국 5G 가상사설네트워크수는 이미 3.3만개를 초과해 지난해 동기의 2배 이상이며 업계에 대한 5G 응용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공정정보화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는 산학연용 각측과 함께 다부문 협력을 강화하여 5G 응용 규모화 발전이 계속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민넷

## 훈춘철도통상구 1분기 수입화물 백만톤 돌파



올해 1분기 훈춘철도통상구의 수입화물량이 백만톤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길림성동북아철도집단 훈춘지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훈춘-로씨야 마하린노 철도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 로씨야 화물운송 철도이며 ‘장길도’ 개발개방, ‘동북아’ 상호 련통의 ‘해상 실크로드’ 교차점이다. 2023년 이래 훈춘철도통상구는 다품종 쌍방향 운송을 실현했고 훈춘에서 출발해 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 한국 부산을 경유해 우리나라 상해로 가는 외국 화물과 국내 화물 동반 운송 항로 및 훈춘에서 출발해 로씨야 슬라비안카를 경유해 냉파로 가는 내륙화물 대외운송 항로를 새로 개통했다. 현재 주요 수입품은 여전히 로씨야의 석탄이다.

보다 안정적이고 량질적인 봉사를 제공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는 근무모식을 부단히 조정하고 근무 순환

제도를 과학적으로 건립하는 동시에 세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동시에 로씨야 련락의 출입국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동북아철도집단과 예보련락기제를 구축하여 출입국 직원, 화물 및 련차 운행 상황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도착, 즉시 확인, 즉시 방출하는 모식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화물렬차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보장하는 전제하에 중로 화물렬차의 통관 능률을 대폭 높였다.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 부소장 리춘우는 “훈춘-로씨야 마하린노 철도가 정상 운영을 재개한 이래 우리는 철도통상구 근무전담반과 국제렬차감독보호전반반을 신설하고 로씨야 변경검사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철도통상구의 무휴일, 24시간 통관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철도통상구의 빠르고 편리하며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 연변조간

## 훈춘 2개 기업 성급 생태농장으로

최근 길림성농업농촌청은 ‘2023년 길림성 성급 생태농장 주제 명단’을 발표하고 81개 생태농장에 ‘길림성 성급 생태농장’ 칭호를 수여했다. 그중에는 훈춘시출입경변방검사소와 훈춘시기리기입쌀재배전문합작사가 포함되었다.

훈춘시출입경변방검사소 농장장은 삼가 자만족향 동강자촌 촌민 류춘영이 2013년에 설립했으며 농업재배, 농산물가공, 축산양식, 농업기술진흥봉사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최근년간 농장은 생산, 가공, 판매의 융합 발전과 전 과정 기계화 작업을 통해 연간 비생산량이 3,000톤에 달하고 2,500만원의 생산액을 실현

했으며 주변 마을 50여명 여성의 소득을 증가시켜주었다.

훈춘시기리기입쌀재배전문합작사는 경신진 구사평촌에 위치해있고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훈춘야생동식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기리기입쌀을 재배하고 있다. ‘기리기입쌀’ 브랜드를 알리고 입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작사는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쉽게 도복되지 않으며 식감이 좋은 우량품종을 엄선하고 세계자연기금회, 중국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기리기입쌀’의 안정적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이 브랜드가 경신진의 ‘스타’ 제품이 되게 했다.

/ 훈춘시용림미디어중심

## 길림성 2023—2024 겨울 시즌 국내 관광수입 전년 대비 140% 증가



길림성이 2023—2024 겨울 시즌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1억 2,500만명 (연인원, 이하 동일)의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12일, 길림성문화및관광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길림성은 2,419억원에 달하는 국내 관광수입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확대된 수치다. 이로써 내국인 관광객수와 국내 관광수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길림성체육국은 ‘3억명 빙설스포츠 참여 건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2023—2024 겨울 시즌 300여개의 대중빙설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기간 길림성이 중점 모니터링한 9개 스키리조트구는 405만명의 스키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 늘어난 수치다. 그로 인한 수입은 37.1% 확대된 16억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길림성 전체 스키장의 하루 최대 수용 규모는 1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한편 길림성은 성급 차원에서 3,500만원, 각 시(주) 차원에서 3,638만원에 달하는 빙설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씨트립 통계에 따르면 2023—2024 겨울 시즌 길림성 호텔 매출액, 항공권 매출액, 입장권 매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9.1%, 73.2%, 81.5%씩 증가했다.

/ 신화사

